

110 학년도 1 학기 Eurasia 재단 국제 세미나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 구축과 변모」 시리즈 강좌 (8)

주제: 대만과 일본의 장기요양 발전 공유

중국문화대학교 110 학년도 제 8 회 Eurasia 재단 국제 세미나에서는 대만건강익스프레스(iHealthexpress) 유한회사의 왕조연(王照允) 대표를 초청해 「대만과 일본의 장기요양 발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왕 대표는 장기요양 의료산업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대만·일본의 장기요양산업의 현황과 도전 및 미래발전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다. 장기요양산업이 아직 미흡한 대만이 장기요양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여 고령자에 대한 체계적인 간호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개방한다면 대만의 장기요양산업은 경쟁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창조와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의 「초고령화 사회」 현황과 영향

왕 대표는 먼저 65 세 이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geq 7\%$ 는 고령화 사회, $\geq 14\%$ 는 고령사회, $\geq 20\%$ 는 초고령사회라고 언급했다. 대만은 2017 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2025 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국가의 고령화는 고령화·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전쟁 후 베이비붐으로 인해 대만은 고령화에서 초고령화로 이르는 데 32 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경제활동인구는 2 년 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하에 고령자 부양, 퇴직금, 세금 인상 등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 인구의 의료 지원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 비용 부족, 장기요양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왕 대표는 급속한 고령화는 정책·경제·사회 분야에 도전과 다양한 기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일본을 거울로 삼기: 장기요양산업의 발전과 수요

인구 구조의 발전과 함께 고령인구에 필요한 서비스, 예를 들어 음식 및 숙박, 레저, 재정관리, 요양보호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대만은 의사나 약사와 같은 반드시 필요한 직종 외에도, 고령자 관련 산업들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은 2000 년에 장기요양보험을 선보였고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2003 년에 설립됐다. 왕 대표는 일본의 「와타미 그룹」이 90 년대 후반부터 노인 급식 배달, 요양 기관 설립, 밀키트 택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도요타」는 휠체어 리프트 차량, 고령 운전자를 위한 차량을 출시했다. 「니치이(ニチイ)」는 원래 의료 교육 기업이었는데 최근에는 장기요양인력 교육과 요양센터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이외에 왕 대표는 요양센터 설립을 예시로 들며 대만과 일본 양국의 차이에 대해 언급했다. 대만은 병원 부설 요양센터가 대부분인데 비해 일본의 기업 주도 요양센터는 사람 중심, 가족 같은 분위기, 커뮤니티 활동 중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험을 본보기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장기요양의 핵심은 「실제적인 보살핌」이며, 고령자의 의견과 필요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장기요양산업 발전의 도전과 기회: 정책과 관념 그리고 혁신

왕 대표는 장기요양산업의 발전은 가족 부양, 정부 정책, 산업 혁신 이 모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만의 장기요양산업이 직면한 문제는 「가족 부양」에 대한 정보의 격차와 산업의 급격한 변화 구조이다. 게다가 장기요양보험은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필요로 하는데, 대만은 아직까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 주도의 장기요양 서비스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와 안정 욕구만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기업들의 민영화 시장 진출 기회를 넓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면 기초 서비스도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왕 대표는 장기요양산업의 경제규모는 의료비용의 약 1/6 이며, 이와 관련된 산업은 5 배의 이익 효과를 본다고 분석했다. 대만

장기요양산업의 규모는 약 6 천억(대만 달러)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재 대만의 장기요양산업은 성장률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간병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급여가 낮아 고급 인력의 장기요양시장 진출을 장려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왕 대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장기요양산업에 투자하여 산업 피라미드가 형성되면 경쟁력이 생겨 품질 향상과 우수 인재들의 유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밖에 최근 일본이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의 요구를 접목시켜 요양센터에 유치원을 설립하는 방식도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산업 모델이다. 학생들은 지속적인 학습, 혁신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길 바란다.

(웹사이트 : <https://eurasia.pccu.edu.tw/index.php>)

번역: 류혜랑(柳慧朗) 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교수